

충북건축사회, 건축사 토론 한마당

이충원 박사 초청



충북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 토론 한마당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했다. 지난 9월 10일(금) 초청약수 스파텔에서 회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이충원박사를 초청해 전문직업인의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건축사의 급증에 따른 덤핑수주 문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삭제에 따른 향후 대책, 건축사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전남 건축사 회원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전남건축사 회원전을 개최한다. 99건축문화의 해 광주, 전남지역추진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MBC목포문화방송 전시실에서 각각 열린다. 학생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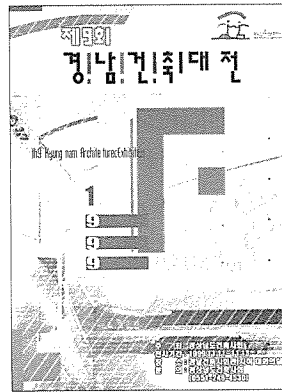
경남건축사회, 제1기 도민건축대학, 제9회 경남건축대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남건축사회에서는 경상남도과 함께 제1기 도민건축대학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남여성회관에서 개강한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경남건축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9회 경남건축대전 작품전시를 한다.

문의: 0551-246-4530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문화엑스포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강둔치에서 국내최초의 「미래건축」종합전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천년이 열리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의 한 축으로서 건축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미래건축전을 통해 예측해보려는 시도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한국건축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조직위원장 김정철)를 맞아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SBS가 공동주최하고 건축문화엑스포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 최대의 종합 건축행사로 마련된다. 크게 주제관, 모델하우스관, 건축산업관 그리고 행사/공연 등 4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외 미래건축 관련 자료를 총취합하여 전시하므로써 미래건축의 흐름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여 건축문

화의 대중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미래건축전은 건축이 열려 가는 새 천년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8개실, 약1천평 규모로 이루어진다. 모델 하우스관은 분양 및 홍보용 모델하우스 전시를 통하여 각 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실고객에게 다양한 분양정보 및 궁금증을 해소시킴으로 분양 및 개발사들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할 것이다. 건축산업관은 밀레니엄 시대의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관련 제품들을 전문관으로 구성하여 건축, 건설, 디자인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구매상담을 유도하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은 10월 15일(금) 오후3시에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개최됐다.

문의: 건축문화엑스포사업본부 (744-2811손경익팀장)

한국건축문화엑스포, 건축가 초청 특별 강연회

2000년대에는 어떤 집을 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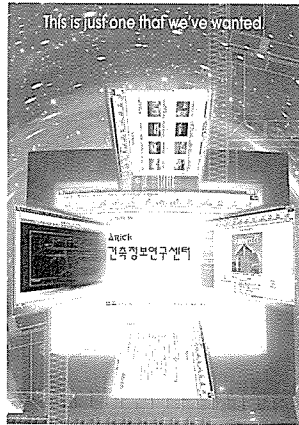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열리는 「한국건축문화엑스포」 행사의 하나로 '건축가 초청 특별 강연회'가 열린다. 이번 건축가 강연회는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SBS에서 주최하고 건축문화엑스포 행사위원회와 현대건축이 주관하는 행사로 10월 15일 류춘수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건축가 12인을 초청하여 지금까지 작업해 온 집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의 주거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연회 사회 및 대담은 건축가이자 시인인 이윤하씨가 맡는다.

- 10월 15일/11시~13시/류춘수/좋은 집이란
- 10월 20일/13시30분~15시30분/김석철/21세기 한국과 중국의 주거공간 비전
- 10월 21일/13시30분~15시30분/민선주/함께 만들어 가는 집

- 10월22일/13시30분~15시30분/배병길/시대와 주거공간의 함수관계
- 10월 27일/13시30분~15시30분/임재용/땅과 프로그램이 만드는 집
- 10월 28일/13시30분~15시30분/이강현/간거리
- 10월 29일/13시30분~15시30분/김봉렬/전통주거-삶의 공간
- 11월 3일/13시30분~15시30분/우경국/느린 체계의 건축
- 11월 5일/13시30분~15시30분/정기용/21세기 집-유목민과 정주민
- 11월 11일/13시30분~15시30분/김병윤/일상의 틈으로써의 집
- 11월 12일/13시30분~15시30분/김태우/행복이 가득한 집

건축가협회, 건축정보연구센터 개통

9월 9일부터 본격 건축정보 서비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부설 건축정보연구센터가 지난 9월 9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축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비롯해 각종 건축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건축가협회는 1995년부터 건축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7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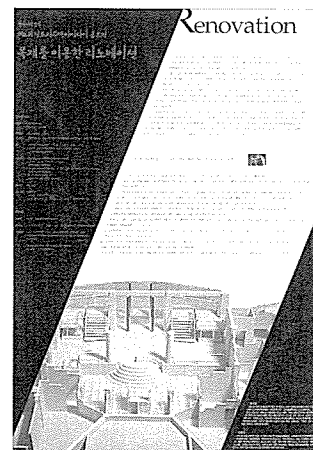
통신부로부터 정보화 지원사업 선도응용 시범사업체로 선정되어 10개월여 동안 건축정보 멀티모달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제공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메타 데이터 기반의 건축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를 포괄하는 종합건축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방대한 건축정보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제공하게 된다. ARICK에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건축가, 건축작품, 설계사무소, 건축기술, 건축도서, 건축사료, 건축행사, 건축교육, 관련 사이트 등이며, 점차 국외 정보로 그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인 위한 영문검색 시스템도 별도로 두어 국내 건축가들에 대한 인물정보, 작품, 건축사 사무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3675-2550,

Http://www.arick.or.kr

제6회 탈도시 주택아이디어 공모전

목재를 이용한 리노베이션



이상건축이 주최하는 제6회 탈도시 주택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요강이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탈도시 주거로 설정됐고, 단지 올해에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이용한 리노베이

선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사용될 주요 구조재는 목재로 국한된다. 이번 공모전의 당선작 10점에 대해서는 해외 건축기행 공전이 부여된다.

- 응모자격: 전국의 건축사사무소 직원, 전국의 건축관련학과 학생, 해외유학생 1인1작
 - 신청서배부 및 접수: 1999년 10월 18일~22일
 - 작품미감: 2000년 1월 25일~27일
- 문의: 02-549-5383

99목원 건축·도시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에서는 제 19회 목원건축전과 제11회 도시계획전을 개최한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대외공모전 입상작과 동문찬조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중에 남택중(간삼건축/건축디테일 읽기, 쓰기, 말하기/10월 19일 11시)씨와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걷고싶은 도시 이루기/10월 20일 15시)씨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건국대, 건축대학원 특강

류춘수, 오섬훈 등 강연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대학원 로비에서 가을학기 특강을 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이번 특강은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6일까지 금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된다.

- 9월 3일/김광현/왜, 지금 루이스 칸인가?
- 9월 10일/박철수/미래주거공간의 전개 방향
- 9월 17일/이은석/우리시대 건축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문제
- 9월 20일/맥나마라/Letter from Britain, Research from the AASchool in London
- 9월 30일/송도영/공간을 만드는 문화적 힘(이슬람 전통도시의 정체성과 근대성)
- 10월 1일/한만원/추상과 유추
- 10월 8일/박찬수/생활속의 나의 발견
- 10월 15일/오상길/현대미술과 전시공간
- 10월 29일/홍윤식/한국의 불화와 가람구조
- 11월 5일/오섬훈/사건들의 조직 (NOMADICS)
- 11월 12일/류춘수/멤브레인 건축과 서울 월드컵경기장
- 11월 19일/정진국/교르뷔제의 건축색채이론과 그 실제(1920~1930)
- 11월 26일/김성기/유교의 자연관과 인간관

문의: 02-450-3286

홍익대, 제43회 건축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43회 홍익건축전을 홍익대 신축강당 3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4학년 졸업작품과 생태건축을 주제로 한 3학년 공동작품 및 1, 2학년과제와 함께 대학원 건축과제도 전시되며, 특히 졸업작품 중에서 4작품을 선정하여 동문회장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2-320-1106

파리국제건축자재전시회, BATIMAT99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세계최대의 건축자재 및 장비박람회인 BATIMAT99 파리전시회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파리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최신기술과 정보, 변화하는 건축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회와 관련하여 범주관광(주)에서는 파리근교에 보존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건축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한불문화협회장인 강석원씨가 인솔한다.

문의: 02-741-3656(구룹가건축), 02-558-0650~2(범주관광)

제주건축100년전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행생)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주건축에 관한 작품을 모은 제주건축 100년전을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로 제주건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건축과 미술」 전 개최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환기미술관에서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환기미술관에서 주최하고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건축과 미술」전이 환기미술관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다. 총 3부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는 제1부 '건축가가 없는 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의 기능을 달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집을 통해 건축의 물성보다 인간의 휴머니티가 지배하는 순간, 그리고 건축가가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삶 속에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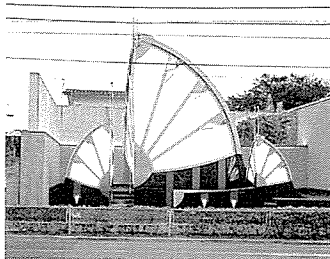
제2부 '구축된 삶의 공간'에서는 건축가가 하나의 건축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간 흔적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 등을 통해 건

축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해와 감성의 깊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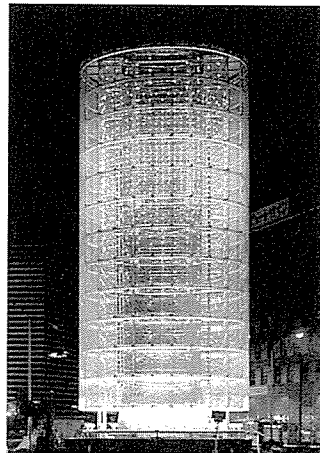
제3부 '상상의 건축'에서는 사이버건축 및 종이건축을 통해 이미 상상속에서 건축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일본 현대건축전

리켄 야마모토, 신 카마츠 강연



Earthtecture Sub-1(Shin Takamatsu)



Tower of Winds in Yokohama(Toyo Ito)

한국문예진흥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일본현대건축전이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일본 현대건축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주요 일본건축물 사진을 전시했다. 참여

건축가는 이소자키 아라타, 구로가와 기쇼, 안도 타다오, 이토 도오, 우치지 쇼조, 타케야마 미노루, 키타가오 아치시 등이었다. 한편 일본 건축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야마모토 리켄과 다카마츠 신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10월 6일과 9일에 각각 강연을 갖고 그들의 건축세계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서양 건축문화 비교 심포지엄

'건축, 자연, 인간의 정주' 주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서양 문화비교 프로그램을 기획, 그 첫 번째 행사로 동서양건축문화 비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 자연, 인간의 정주'를 주제로 지난 10월 7, 8일 양일간에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참여건축가는 중국의 루조우, 프랑스의 피에르클레망,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 다카마스 신, 이탈리아의 프랑코 만쿠조, 미국의 우규승, 독일의 리처드 로호바인 등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해, 김석철, 강혁 등이 참여했다.

건축신문

재미있는 건축법 따라잡기
주머니속의 건축
건축디자이너?
르 코르뷔지에
건축행정편람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1),(2)

◆재미있는 건축법 따라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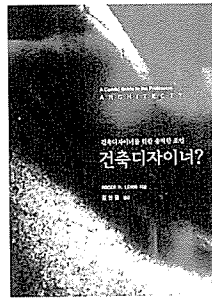
자칫 육중한 철물처럼 느껴지기 쉬운 건축법을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여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고,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꾸몄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건축관계법을 총망라해 놓아 이 한권만 있으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을 듯하다.
김원태 지음/271쪽/9천5백원/시공문화사 발행

◆주머니속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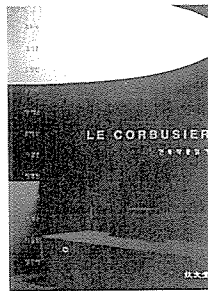
공시인 건축의 최부득회원이 쓴 현대인이 알아야 할 건축이야기이다. 건축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건축에 관해 이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썼다는 이 책에는 건축개론, 건축사(史), 국내외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건축상식 등 건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다이제스트해 놓았다. 최부득지음/176쪽/9천원/도서출판 미술문화 발행

◆건축디자이너?



건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혹은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 건축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되기를 했으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건축가로서 살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간간이 일러스트를 곁들여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로저 K.루이스지음, 김현중 옮김/320쪽/1만3천원/도서출판 국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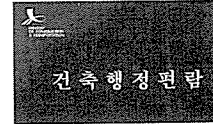
◆르 코르뷔지에



르 코르뷔지에 건축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12명의 저자가 설계이론연구회에 몸담으면서 2년여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묶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눈으로 그의 건축을 직접 살핀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저자들의 공감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이니만큼 독창적인 연구이론서이다.
김도식외 11명 지음/367쪽/1만 5천원/기문당 발행

◆건축행정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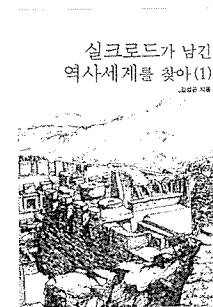
이 책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을 내용과 해설을 곁들였으며, 건축법 및 건축사법 관련 질의회신 800여종과 건축법령관련 각종고시 및 지침 27종을 함께 수록돼



1999. 9
건설교통부

있다. 우리협회는 이 책을 회원에 한하여 10월 5일부터 11월 6일 한달간 구입대금을 온라인 송금후 전화(02-2279-6912)나 팩스(02-2268-0688)로 구입을 신청하면 보급가로 제공한다. 건설교통부 퍼냄/1,120쪽/보급가 2만원/미도인쇄 발행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 (1), (2)



이 책은 저자가 15여년동안 실크로드 관련 나라인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튀니지 등 아시아의 동쪽에서 지중해까지 탐방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과 역사세계를 집대성한 글이다. 낙타와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닌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로마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시켰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의 길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파와 동서양의 문화 왕래의 장이었던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했다.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들을 차례로 묶어 저술하였고, 방대한 사진과 도면, 탁원한 스케치로 현장감을 살리고 있으며, 답사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도 곁들여져 있다. 김성곤 지음/1만5천원/월간 이상건축 발행